

## 구약성경의 기록 오류-2



이스라엘 왕 여호람(KJV은 Jehoram, NIV판 영문은 Joram으로 적고 난하주에 히브리어로는 Jehoram이라고 하는데 개역개정판은 여호람으로 되어 있음, 기원전 849~842 재위)의 즉위 연도에 대해 열왕기하 1:17에는 '이스라엘 왕 아하지아가 아들이 없어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람(Jehoram, 기원전 849~842 재위) 2년(기원전 848)이라'고 적혀 있지만 통치 기간에 대한 언급이 없고, 같은 책 3:1에는 유다 왕 여호사밧(기원전 873~849 재위) 18년(기원전 855)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아하지아의 형제)이 사마리아에서 12년 동안 통치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책 8:16에는 유다 왕 여호람의 즉위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기원전 869~850 재위)의 아들 요람 왕(KJV판이나 NIV판 모두 Joram, 기원전 849~842 재위) 5년(기원전 844)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으로 재임하던 때에 그의 아들 여호람이 32세에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8년간 통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 북이스라엘국과 남유다국의 동명이인의 왕들이 동일한 기간 통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각각의 즉위 연도나 재임 기간에 대한 기록의 오류가 보입니다.

아시리아의 살마네세르 3세가 기원전 853년 카르카르 전투에서 사마리아(북이스라엘국)를 점령하여 속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북이스라엘국의 여호람 왕이 아시리아에 바치는 조공을 충당하기 위해 유다 지역을 정비하고 통치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 지역은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국이 멸망하기 전에 이미 사마리아의 행정구역으로 편입되었을 수 있습니다.



카르카르 전투

이스라엘국이나 유다국의 왕이 동일인인 여호람이고,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4년째 되던 해에 남유다 왕국을 정비하여 통치했다면 이스라엘 왕으로 12년 재위하였고 남유다 왕국의 왕으로 8년간 재위했다는 구약성경의 기록은 상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호람 왕이 나타나기 전까지 남유다 지역은 초라한 촌락이나 부족사회의 형태로 존속하고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였다면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이나 왕궁이 세워졌을 수 없으며, 모세, 다윗과 솔로몬 시절은 우화 속에 존재했다는 것이 입증됩니다. 남유다 지역이 국가의 형태를 전혀 갖추지 못하다가, 여호람 왕 시절에 사마리아의 행정구역으로 편입되었다면, 기원전 922년 이후 그때까지 남유다국이 북이스라엘국과 국가의 형태로 공존했다는 주장은 허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로도 남유다 지역에 대한 통치의 실효성이 떨어져 남유다 지역은 이전과 같이 부족사회의 형태로 자치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국의 멸망으로 인구가 대거 유입되면서 남유다는 국가의 모습을 갖추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아니라 인디언의 추장과 같이 단순한 족장 수준이었음을 보여주는 성경 내의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29에서 베드로가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patriarch David: 족장 다윗)에 대하여 담대하게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라는 표현입니다. KJV판이나 NIV판 모두 ‘족장(patriarch)’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개역개정판은 조상이라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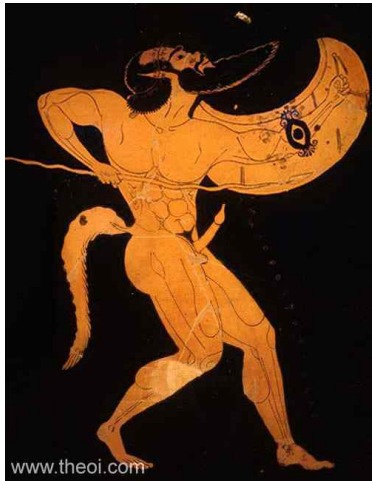
스데반은 사도행전 7:8과 7:9에서 12지파를 언급하면서 이들을 족장들이라고 하고 바울도 히브리서 7:4에서 아브라함을 족장으로 지칭하면서 십일조라는 세금을 낸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말 구약성경에서 주장하는 바대로 다윗이 제대로 된 국가를 운영하고 있었고 왕의 신분이었다면 아브라함이나 12 지파의 장들을 지칭하는 족장이라는 용어를 다윗에게도 똑 같이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초기 주요 인사들에게 적용된 왕이라는 용어가 신약성경이 쓰인 시점의 지식인들에게는 규모가 작은 족장 정도의 수준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사야가 웃시야(기원전 783~742재위), 요담(기원전 750~735재위), 그리고 히스기야(기원전 715~687/6 재위) 시절에 활동한 것(이사야 1:1, 38:1)으로 되어 있는데, 고레스(신바빌로니아 왕, 기원전 550~530 재위)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사야 45:1)을 보면, 이 또한 이사야서는 바빌론 유배 이후에 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리아가 멸망할 것(10:12), 바빌론으로 유배 갔다 돌아올 것(11:11)도 나오는 것을 보면 유배 이후 쓰인 것이 확실합니다. 다윗이 멸망시켰다는 모압족에 대해 예언(15-16장)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책에서만 유일하게 스랍(seraphs, 치천사)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KJV판에는 시리아(Syria)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당시에 이런 지명이 없었기 때문에 NIV판에서는 아람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시리아 왕 르신(Rezin)의 후손들이 바빌론 유배에서 함께 돌아온 명단(에스라 2:48, 느헤미야 7:50)에 들어가 있는데, 이사야가 특히 여러 번 르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개역개정판에 들양(wild goats, 13:21)과 숫염소(wild goats, 34:14)로 번역되어 있는 동물 이름이 KJV판에는 사티로스(satyr)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그리스·로마 신화에 나오는 반인반수(半人半獸: 반은 사람 반은 동물)의 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사야에

섬(island)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 것을 보면, 이 책의 저자는 그리스의 지배를 받고 있거나 그 지배에서 벗어난 지 오래 지나지 않은 시점에 살았고, 그리스 문화와 역사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사야 14:11에 비파(harp)로 표기되는 악기가 KJV판에는 비올(viol)로 나오는데 비올은 현대의 바이올린의 전신으로 중세기[15세기 중반이나 후반에 스페인에서 처음 나타난 이후 르네상스(1400~1600) 시대와 바로크(1600~1750) 시대에 널리 사용된 악기임을 고려하면 이사야서의 내용 일부가 중세기에 추가되거나 수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KJV판의 민수기 22:5에는 발람이 브올(Beor)의 아들인 반면, 베드로후서 2:15에는 보소(Bosor)의 아들이라고 표기합니다. 그런데 NIV판에는 두 곳 다 브올의 아들로 수정해 뒀습니다. 발람은 이민족인데 여호와가 직접 찾아가거나 천사를 보내 대화하며 의견을 나누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민수기 12:6-8에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 그(모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와의 형상을 보거늘”이라는 표현과 배치됩니다. 여호와는 제멋대로의 화신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출처:

1) *Hammond's Atlas of the Bible Lands (성경지역 지도)*, edited by Harry T. Frank, 1990: 40, 즉위연도에 대한 내용은 이 자료를 주로 참조함